"종밀의 불교수용 중국 유·도가들에 '진실의 세계' 제시"

조윤호씨 주장

"불교의 수용과정에서 중국전통사상에 대한 종밀(宗密·780~841)의 이해는 우호적·조화적 태도로써 당시 종교계·사상계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편협한 입장을 깨닫게하며 진실의 세계로 눈 돌리게 했다."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스님) 발표회에서 조윤호씨(전남대 강사)는 '종밀을 통해서 본 중국전통사상과 불교의 만남'을 통해 "종밀은 중국전통사상에 대해 융화적 입장을 견지하며 불교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종밀의 융화적 태도는 특히 영혼관을 이해하는데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윤회에 있어 심적·정신적 요소의 상속과 불멸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의 통속적 영혼관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어문논집' 제3집 불교문학 심층연구

한국불교어문학회(회장 이종찬)가 최근 펴낸 〈불교어문논집〉 제3집에 불교사와 국어학의 학문적 협업과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 11편이 소개되고 있다.

'사명유정론(四溟惟政論)'에서 배규범씨(경희대 강사)는 "승병장 사명유정(四溟惟政)의 현실 대응논리는 우국충정과 구도심 사이의 고뇌였다"며 "현실과 수행의 조화를 통한 그의 실천적 삶은 '세속 지향의 포교문학'이라는 문학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현설씨 '나손학술상'

'나손학술상' 제8회 수상자로 동국대 조현설씨(국문학부 강사)가 선정됐다. 조씨는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속·시조신화 연구에 새 지평을 연 공로로 수상자로 결정됐다.

월인석보 권25 첫 연구논문

강순애교수 발표…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 연구에 도움

지난 95년 12월,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월인석보〉 권25. 〈월인석보〉 권25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전부가 24권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며, 기존에 580장으로 여겨왔던 〈월인천강지곡〉도 583장까지 찾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21일 대구 계명문화대에서 열린 서지학회(회장 배현숙)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순애 교수(한성대 문헌정보)는 저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연구한 '새로 발견된 초참본(初本) 〈월인석보〉 권25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월인석보〉 권25의 발굴은 초참본으로서는 처음 발굴된 것으로 전체 24권으로 간행됐을 것이라는 〈월인석보〉에 대한 학설을 깨는 획기적인 일이였다"고 평가했다. "그 구성과 내용은 석가열반 이후의 경·율·장(經律藏)의 결집과 아육왕(阿育王)의 불탑(佛塔) 조성을 큰 줄기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을 저경(低經)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월인석보〉 권25에 대한 첫 연구논문이다.

강교수는 특히 "권25 중 석보부(釋譜部)는 〈석보상절(釋譜詳節)〉 권24(1966년 발굴)의 내용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저경의 내용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며 "권25의 발굴로 〈석보상절〉 권24의 저경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굴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월인석보〉 권25는 세종이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며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저본으로 하여 1459년 세조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각종 불경에서 뽑아내 풀어 엮은 것으로 97년 보물 제745-9호에 지정됐다.

권25의 구성에 대해 강교수는 "전반부는 경·율·장의 결집에 관한 부분으로 〈경덕전등록〉 권1, 〈경률이상(經律異相)〉 권13, 〈법원주림(法苑珠林)〉 권35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고, 후반부는 아육왕의 불탑 조성에 관한 부분으로 〈석가보(釋迦譜)〉 권3·5,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권28에 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월인천강지곡〉의 577~583곡 등 7곡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이 부분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권25의 내용에 대해서는 "〈월인천강지곡〉의 배열로 보아 5단계로 구분되며, 앞부분 2장이 결락(缺落)되어 3장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1단계는 가섭(迦葉)이 삼장(三藏)을 결집하는 과정으로, 3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결락된 2장에는 〈월인천강지곡〉 575곡 또는 576곡이 실려있으며 삼장을 결집하는 내용의 앞부분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2단계는 아육왕의 공덕, 성장, 폭정, 참회, 8만4천탑의 조성에 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제3단계는 8만4천탑의 완성, 아육왕의 병치유, 녹야원(鹿野院) 참배, 아육왕 형제의 출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4단계는 아육왕의 죽음과 그의 손자에게 왕위를 양위하는 내용이 〈석가보〉 권5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제5단계는 144장 이후의 결락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권25 3장.

강교수는 권25 연구와 관련하여 "권수(卷首) 부분의 2장이 결락되어 〈월인천강지곡〉의 시작여부를 알 수가 없고, 또한 권말(卷末) 144장 이후 부분의 결락으로 〈월인천강지곡〉 582~583장 이후의 전개를 알 수가 없어 권25로 마감이 되는지 26권으로 이어지는지는 추정할 수 없다"며 "후대에 원간본(原刊本) 또는 번각본(飜刻本)의 완전본이 발굴되어 새로운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 '오늘의 동양사상' 창간호

인도·불교철학 방향 제시

97년 한해동안 발표된 인도·불교학 관련 논문을 분석, 인도·불교철학사상의 연구방향을 제시한 글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문동양사상연구원(원장 김충열)이 지난달 펴낸 동양사상 관련 종합학술지 〈오늘의 동양사상〉 창간호에서 최정규씨(同연구원 인도·불교철학 연구실장)가 120여 편의 인도·불교철학관련 논문을 정리분석한 글 '인도·불교철학 가야할 길'을 발표한 것. 이 글에서 최씨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는 연구영역의 다양성과 함께 시대적 문제의식에 불교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돼야 한다"고 인도·불교사상의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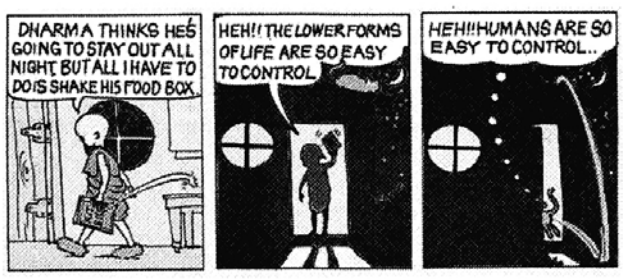
이번 분석을 위해 최씨는 먼저 1997년 발표 논문(박사학위논문 포함) 120여 편을 교학(敎學)과 선학(禪學)으로 구분하고, 또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논문을 분류해 냈다. 분석 결과는 교학연구가 47%로 선학연구(15%)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교학을 해동(13%), 유식(10%), 천태(8%), 중관(6%) 등 단일 종파로 재분류할 경우 선종에 대한 연구가 가장 우세를 보이게 된다.

인물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에서는 원효(33%), 지눌(11%), 의천(11%), 나옹·성철·용수·지장·효봉(각 2%) 등의 순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논문이 두드러짐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최씨는 분석결과에 바탕, 인도·불교철학 연구의 나아갈 방향으로 △특정 연구에 편중된 현상 극복 △연구내용의 다양화를 통한 중복성 지양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 절실 △근현대 불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인접학문과의 교류협력 필요 △자료의 공유를 위한 통합적인 정보망 구축 △시대적 문제의식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달마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http://www.dharmath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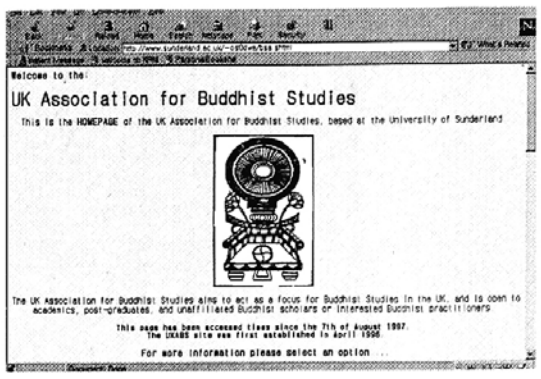


수행자는 멈춤이 없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고양이 먹이가 든 상자를 흔들어야만 한다.

야! (보디는 상자를 흔든다. 그리고 "동물들은 다루기가 너무나 쉬워"라고 말한다)

(지붕에서 뛰어내린 달마) 인간은 다루기 쉬운 존재야.

해설 온갖 중생은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어 차별이 없다. 진여의 세상에는 모든 유·무정물, 범부, 보살, 부처님들이 있어서 더하고 덜함이 없다. 과거에 생긴 것도 아니며 미래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절대로 영구하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영국불교학협회

맨체스터大 중심 불교학 연구 활발

학자간 다양한 연구실적·정보 교류

불교의 여러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톡톡' 튀는 인터넷 학술 사이트를 찾아 보자. 경전과 교리 연구가 가장 앞섰다는 영국에서 개설한 불교사이트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로 영국불교학협회(United Kingdom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이다.

영국에서 불교학 연구에 중점을 두고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그리고 관심있는 불교 수행자와 불교 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단체이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개인의 독자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아주 작은 소그룹 규모로 불교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류학, 동양학, 비교종교학, 법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신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심도있는 불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영국에 있는 뜻있는 불교학자들이 모여 맨체스터대학(Manchester University)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불교학 연구 운동이 일어나게되었다.

영국불교학협회 상임위원회의 회장으로는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비교종교학 코우신교수가 맡고 있다. 영국불교협회가 설립될 당시의 헌장에는 '불교를 주제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영국내 및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학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협회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다.

영국불교학협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또 불교학 관련 학문을 연구중이거나 불교 관련 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학회 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불교, 서구불교의 발전을 포함하여 불교의 역사적·현대적 측면에서의 연구, 사회문제의 이론적·수행적·방법론적 연구, 불교의 경전적·언어학적·고고학적·미술사학적 연구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중요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불교학협회 회원자격은 이 협회가 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정기총회에서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불교학협회 총회 안건은 상임위원회 정족수 회원(10명)의 만장일치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신입 회원들의 가입 신청에 대한 찬성·반대 결정권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영국불교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불교학회지(Buddhist Studies Review)〉를 열람할 수 있다. 이 학회지는 러셀교수가 편집장을 맡고 있다. 또 인터넷 상에 이 협회를 소개하는 부정기적인 전자 소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sunderland.ac.uk/~os0dwe/bsa.shtml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우리 시대의 원효
이기영교수의
불교개론강의
불연이기영전집 제24권, 상권 293면, 8,500원 / 하권 363면, 9,500원
한국현대 불교학계의 거목이었던
불연 이기영교수의 불교관을 집약한 이 책은
불교가 어떤 점에서 진리인가 하는 그 요체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그리고 신념에 가득찬 목소리로 설하고 있다.

불교는 새로워져야 한다!
어지러운 한국 현대불교계에 고하는 제언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
불연이기영전집 제18권, 333면, 9,000원

이기영교수의 삶과 사색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불연이기영전집 제17권, 329면, 8,000원

한국불교연구원
TEL : 3411-6167,6168
FAX : 3411-6164

●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구도 행장기
최초발굴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 비구니 스님

화엄경(華嚴經)은 세상 혹은 우주를 꽃으로 장식하기를 권하고 가르치는 경전이다. 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한자에서는 가시적인 꽃을 화(花)로 나타내고, 비가시적인 꽃을 화(華)로 나타낸다. 두 꽃은 모두 아름답고 곱고 예쁘고 향기롭고 값진 것이지만, 뜻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비구니 스님들은 꽃(花)으로 태어나 꽃(華)이 된 존재들이다.
한승원 '후기' 중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절을 일구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비구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렸던 것이다. 다소 흐트러졌던 수행자들은 이 책에 실린 선학(先學) 스님들의 삶을 지남(指南)으로 삼아 추스리고, 아직 불교와 인연이 닿지 않은 이들은 이 책을 읽고 발심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광우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살다가신 비구니 큰스님들을 다시 뵙고 가르침을 듣게 해주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작업은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데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온 정성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기록되어 전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문하생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 다니며 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다.
해주스님 '출간에 부쳐' 중에서

한·국·불·교·를·빛·낸·큰·세·비·구·니
깨달음의 꽃
하춘생 지음 | 도서출판 여래 펴냄 | 296쪽 | 값 7,800원

도서출판 여래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가 177번지 대영빌딩 201호 · 전화 (02)730-8976 · 팩스 (02)723-6801